

취업자 증가폭 29개월 만에 최저...폭우에 일용직 직격탄

통계청, '2023년 7월 고용동향' 발표
청년층 취업자 29개월 만에 최대 ↓
40대 13개월째 ↓...제조업도 감소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1만명 가량 늘었지만, 증가 규모는 지난달보다 12만명 넘게 줄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는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청년층과 40대 취업자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여기에 집중호우 영향으로 일용직 취업자가 크게 감소한 모습이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3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8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1000명(0.7%) 늘었다. 증가 규모는 지난 4월(35만4000명), 5월(35만1000명), 6월(33만3000명)에 이어 4개월 연속 축소됐다. 특히 전월 증가폭과 비교하면 12만2000명 줄어든 수준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작년 6월(84만1000명)부터 7월(82만6000명), 8월(80만7000명), 9

월(70만7000명), 10월(67만7000명), 11월(62만6000명), 12월(50만9000명)에 이어 1월(41만1000명), 2월(31만2000명)까지 둔화했다. 이어 3월(46만9000명)에 반짝 확대됐으나 4월부터 다시 증가폭이 줄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3만5000명(-0.2%) 감소했으나 여성은 24만6000명(2.0%) 증가했다. 남성 취업자 수가 감소한 건 2021년 2월 이후 처음이다. 남성의 경우 건설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 감소하는 산업 분야에 종사자가 많은 반면 여성은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종사 비중이 높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 8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를 제외하면 취업자는 오히려 8만7000명이나 감소한 셈이다. 50대와 30대에서도 각각 6만1000명, 5만1000명 늘었지만 20대에서 12만8000명, 40대에서 6만1000명 감소했다. 40대 취업자

는 지난해 7월(-1000명)부터 1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1년 전보다 13만8000명 감소하며 9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청년층 취업자는 2021년 2월(-14만 2000명)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크게 쪼그라 들었다. 고용률은 47.0%로 전년보다 0.7%p 포인트(p) 내려갔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 인구감소가 다른 연령 계층에 비해 뚜렷하다"며 "지난해 고용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5000명·+5.3%), 숙박 및 음식점업(12만5000명·+5.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만2000명·+4.8%)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5만5000명·-1.6%), 농림어업(-4만2000명·-2.5%) 등은 감소했다. 건설업은 4만3000명(-2.0%) 줄며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했다. 제조업 역시 3만5000명(-0.8%) 감소하며 7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종사자별 지위를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51만3000명(3.3%)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8만8000명(-16.1%), 임시 근로

자는 14만4000명(-3.0%) 감소했다. 일용근로자는 2021년 1월(-23만2000명)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또 지난 3월 이후 4개월 연속 뒷걸음질했다. 집중호우와 관련된 건설업, 농림어업 분야에서 일용직 감소가 두드러졌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만8000명(3.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만4000명(1.0%) 증가했으나 무급가족 종사자는 6만2000명(-6.1%) 감소했다.

취업 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45만1000명으로 47만9000명(8.0%) 늘었지만,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78만1000명으로 28만5000명(-1.3%) 줄었다. 조사기간 집중호우로 일용직 취업자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2%로 전년보다 0.3%p 상승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5%p 오른 69.6%로 집계됐다. 7월 기준으로 1989년 1월부터 관련 통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높다.

지난달 실업자는 80만7000명으로 전년 동

월 대비 3만명(-3.5%) 감소했다. 같은 달과 비교하면 2012년(80만3000명) 이후 최저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2.7%로 1년 전보다 0.2%p 하락했다. 이는 1999년 6월 관련 통계 개편 이래 7월 기준으로 가장 낮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59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명(-0.2%) 감소하며 29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이 중 쉬었음 인구는 60세 이상(7만 5000명·+8.2%), 20대(3만6000명·+10.6%)를 중심으로 11만6000명(5.4%) 늘었다.

서 국장은 "돌봄수요와 외부활동 증가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집중호우와 건설경기 등 영향으로 증가폭은 축소됐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향후 고용 전망과 관련해 "대면서비스업·보건복지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률·실업률은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겠지만, 건설업·제조업 고용 둔화 영향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8월 기상악화 등은 건설업·농림어업의 취업자 수 증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변용일 기자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추석 선물세트 예약을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대표이사 신영호)가 10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사전 예약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진은 9일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이 행사를 홍보하는 모습. 농협하나로마트는 선물 세트를 사전 예약으로 구매한 고객들에게 행사 카드 구매 시 최대 40% 할인 및 농촌사랑상품권 등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남양유업, '우리 카페 오토 음료 콘테스트'

개인 카페 점주 500명에 오테이스티 증정

남양유업은 내달 17일까지 전국 개인 카페 점주를 대상으로 '우리 카페 오토 음료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에 목적을 둔 이번 프로모션은 남양유업의 식물성 음료 '오테이스티'를 증정하고 제품을 활용한 시그니처 메뉴를 출품하는 행사다. 남양유업은 개인 카페 점주 500명을 통해 접수 받은 오테이스티를 활용한 메

뉴 중 우수작을 선정한다. 다이스 청소기·에플워치·손목 찜질기 등 경품도 제공한다. 출품을 마친 모든 점주에게 오테이스티 1박스를 추가 증정한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소상공인 카페 점주를 대상으로 오토 음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고, 카페 신규매뉴 개발에도 도움을 주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소음 낮추고 밥맛 높이고"...쿠쿠전자, IH압력밥솥 출시

트윈프레서·사일런스 기술 결합

종합 건강 생활가전 기업 쿠쿠전자는 '트윈프레서'와 '사일런스' 밥솥의 장점을 결합해 밥맛은 높이고 소음은 낮춘 트윈프레서 마스터셰프 사일런스 오브제 6인용 IH압력밥솥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신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트윈프레서 기술과 사일런스 압력 시스템을 동시 구현한다는 점이다. 사일런스 압력 시스템은 매립형 압력 추가 실린더의 압력을 정밀하게 제어해 일정한 압력과 열을 보존하고 증기가 통과하는 관은 넓혀 소음을 줄였다. 도서관 수준(36.9데시벨)의 저소음만 발생한다.

트윈프레서 기술은 쫄득하고 찰기가 살아있는 밥을 지을 수 있는 2기압의 '초고압 모드'와 고슬고슬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만드는 '무압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제품은 무압 취사 중 언제든 뚜껑을 열고 신선한 나물 등의 식재료를 추가할 수 있는 '오픈 쿠킹'을 지원해 소비자가 영양소의 손실 없이 건강한 밥을 맛볼 수 있도록 했다. 또 55가지 레시피를 내장해 간단한 영양밥부터 일품요리까지 우리집 식탁에서 즐길 수 있다. 정확히 계산된 온도의 물로 천천히 가열하는 수



비드 요리까지 가능하다. 트윈프레서 마스터셰프 사일런스 오브제는 일반 내솥과 스테인리스 내솥과도 호환이 가능하다. 밥솥 상부에 위치한 히든 디스플레이와 6개의 버튼으로 직관적으로 메뉴를 선택하고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다. 폴스테인리스 원터

치 분리형 커버는 손쉽게 분리한 후 세척을 할 수 있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이번 6인용 모델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10인용 제품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7월 광주·전남 취업자수 4만명 ↑...실업자수 4300명 ↓

호남통계청, 7월 고용동향 발표

7월 광주·전남지역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4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3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광주·전남 지역 고용률은 60.5%로 전년동월대비 1.5%p 상승했다. 취업자는 77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1000명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5.7%로 1.1%p 상승했다. 산업별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만 5000명, 8.2%), 농림어업(5000명, 27.4%), 건설업(5000명, 7.2%)에서 증가했으나 도소매·숙박·음식점업(-8000명, -5.0%), 광공업(-4000명, -3.6%), 전기·운수·통신·금융업(-2000명, -2.1%)에서 감소했다.

7월 광주·전남 지역 실업률은 2.3%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했다. 실업자는 1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00명 감소했다.

7월 전남도 고용률은 67.6%로 전년동월 대비 1.3%p 상승했다. 취업자는 10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9000명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72.1%로 1.7%p 상승했다. 산업별로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건설업(1만 9000명, 29.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9000명, 2.4%), 광공업(4000명, 3.5%) 등에서 증가했으나 농림어업(-8000명, -3.5%), 전기·운수·통신·금융업(-7000명, -8.7%)에서 감소했다. 7월 전남도 실업률은 2.2%로 전년동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는 2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0명 감소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볶음밥도 HMR로 편하게" 오투기, 신제품 2종 내놔



계란·닭가슴살 등 재료 더해 오투기는 '맛있는 볶음밥'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신제품 맛있는 볶음밥은 '베이컨김치볶음밥' '계란볶음밥' 2종으로 구성했다. 계란·닭가슴살 등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베이컨김치볶음밥은 김치와 베이컨을 넣어

식감을 더했다. 계란볶음밥은 영양이 높은 계란과 닭가슴살 등을 풍부하게 사용했다. 오투기 관계자는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볶음밥'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HMR(간편식)로 개발했다"며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재료인 김치, 계란을 활용해 '베이컨김치볶음밥', '계란볶음밥'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뉴스